

“낙후된 시설 가슴 아프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보건복지혁신 현장보고회서 밝혀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는 4월16일 오후2시30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혁신 현장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지방재정 측면에서 복지분야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경기도에 7개의 도입의료원이 있는데 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중심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도 잘 안오시려 한다. 또 낙후된 시설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기도 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 경기도를 찾아주시어 감사드리고, 오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 (구)병무청 건물로 이전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는 4월16일부터 의정부 금오동 소재 경기청 2청사를 의정부 3동 (구)병무청 건물로 이전, 업무를 개시했다.

제2청은 경기북부지역의 민생치안 기능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 3월 의정부시 금오동에 생활안전과, 경비교통과, 수사과 등 3개과와 5개 2대로 조직하고 근무인원 74명으로 출발했다.

그동안 제2청은 경기북부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및 수사 민원 등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광활한 경기도 지역에 맞는 맞춤형 생활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새로 이전한 제2청은 구 병무청 건물로 본관 3층건물 1개동과 별관 2층건물 1개동 및 주차장 등 대지 1천1백여평의 면적을 의정부시로부터 임대 받아 사용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벽을 깨고 넘어서 발전시켜야”

세계도자비엔날레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강조

경기도는 4월12일 오전11시 서울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제4회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기자회견 및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권두현 세계도자기예소포 대표, 천호선 세계도자비엔날레 총감독, 홍보대사 이세나, 박철 씨 등이 참석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우리는 중국에 못지 않은 빛나는 역사가 있으며 세계적으로 도자기가 비싸게 팔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보하는 것은 나라에 대한 실망”이라고 지적하고 “고려·조선시대의 청자 도자 백자, 많은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어 대륙을 넘어 우리의 눈과 역량을 집중해 벽을 깨고 넘어서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나 홍보대사는 “도자기를 전공한 학생으로서 도자 홍보대사가 돼 영광이고, 공인으로서



도자기가 더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박철 홍보대사는 “우리 천년의 혼을 다른 나라에 뱉기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으며 천년의 문화를 전 세계 만방에 떨치기 위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지사님의 지원을 기대하고,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도자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유치 앞장

의정부시, 친환경적 공간 중앙기관 등 주요기관 소재

의정부시가 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경기도제2경찰청과 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경기도제2교육청을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달 21일 제2청사 부지선정을 위한 위치선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의정부시를 비롯한 고양시, 양주시, 포천시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4월 19일 현장방문과 후보지 순위 결정 등 교육청 유치 결정을 위한 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지리적 위치와 교통의 편의성, 후보지의 입지조건 등을 앞세워 유치를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시가 제출한 교육청 유치 후보지는 의정부시 금오동 431-1번지 일원으로 19필지 50,000㎡로서 제2종일반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

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국도3호선, 국도39호선, 국도43호선, 전철1호선 등 경기도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경기북부의 수부도시이기도 하다.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3호선, 전철1호선 등을 이용한 타지역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다음 달 경전철공사에 착수하는 등 교통이 편리한 점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부지는 2008년 반환토록 되어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에세온 토지로서 2005년 9월 30일 기사가 폐쇄되었다. 특히 북쪽에 천보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카일과 캠프시어스에는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해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경찰청 등 국가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며, 인근 낙후된 주거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뉴타운조성을 계획중에 있다.

지난달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부시는 금오동 431-1번지 일원의 미군기지인 캠프 에세온으로서 2005년 9월 30일 기사가 폐쇄되었고 2008년 반환예정인 13필지 의정부시 캠프 라파디아 등 전곡의 14개 기지가 우리정부에 반환되고 캠프 에세온도 반환절차가 본격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시가 경기북부지역 교통의 중심지이고 광역행정타운과 연계한 이용자의 편리성을 강조하였으나 환경오

염 치유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의 경우는 후보지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건축이 어렵고 대로에서 1km이상 떨어져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노출 되었다.

또한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중인 양주시 마전동 125-1번지 일원에 제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행정타운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택지개발에 최소 4~5년 이상이 소요되어 2009년 건축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고 사유지를 보상하여 조성공사를 실시하면 토지가격이 보상비에 비하여 4~5배 이상 상승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부지 매입비가 4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공시지가 이하로 공급한다는 양주시의 제안 내용에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포천시는 신도시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북부 교육발전 의견교환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북부도의회와 간담회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는 4월 9일 오후3시 경기도제2청사 상 황실에서 북부도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05년4월 개청 이후 경기북부 도의회 협의회와 처음 갖은 자리였으며 유재원 협의회 회장의 진행으로 이영호 부교육감의 인사말과 국별 업무보고에 이어 청사 이전 및 시설정준화 사업 등 주요현안에 관한 의견교환이 자연스러운 대화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영호 부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제2청사가 다량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행정서비스로

‘명품 교육행정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경기북부 교육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원과 유기적인 협조를 강조했으며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이번 간담회가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 청사의 회의실 협소문제도 경기도제2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도의회와 집행부 공무원간의 격차는 갖추되 자율적인 대화의 장으로써 경기북부 교육발전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모기업 협력업체 상생협력 파트너쉽 협약식

경기북부지도원, 수도권 철도차량관리단 및 협력업체와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원장 유재삼)은 4월10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수도권 철도차량관리단 회의실에서 수도권 철도차량관리단(단장 정용완) 및 협력업체 대표와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장 및 담당감독관, 모기업 협력업체 안전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기업 협력업체 상생협력 파트너쉽 협약식을 체결했다.

모기업 협력업체 상생협력 파트너쉽은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취약한 협력업체의 재해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체결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기술지원,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지원, 안전 보건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모기업과 공단 노동부가 상호협력하여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의정부시 송림라이온스클럽 사랑실천

의정부시 송림동에 소재한 송림라이온스클럽(회장 이은섭)은 관내 어렵게 살고있는 10가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일 사랑의 쌀(10kg)을 전달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송림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은 직접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해 백미(10kg) 10포를 싣고 송림동에 사는 어려운 이웃 10가구를 찾아가 사랑의 쌀 전달과 함께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온정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송림라이온스클럽은 이번 후원 이외에도 3년 전부터 매년 설 명절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전국 최고의 친절 도시 만든다

의정부시, 친절의 의정부시 만들기 추진



최근 지자체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는 무능공무원 퇴출제도가 중앙 정부에도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친절의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시는 전국 최고의 친절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제기되는 친절, 불친절 사안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근무평정이나 성과상여금, 복지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나 페널티 부여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절한 공무원에게는 단계별로 최고 500점의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한편 해외연수 우선선발, 성과상여금의 일정등급이상 지급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반면,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단계별 복지포인트

축소, 자원봉사 4시간 이상, 성과상여금 및 표창, 해외연수 배제 등의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불친절 공무원을 발생시킨 부서에 대해서도 부서 전원에 일 정등급 이하의 성과상여금을 반영토록 하고 자원봉사도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불친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해당 부서까지 안내해 주는 시책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Go-Together’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여 올해 1월 완료된 정착된 문서처리기간 50% 단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미숙의 전통춤 이야기 ①

진주검무

궁중검무의 원형 보존

본지는 의정부시유명단 단장, 본지 지문위원으로 활동중인 이미숙 단장의 전통춤 이야기를 연재한다. 우리나라에 문화재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전통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편집자주)



진주검무는 도드리장단, 느린 타령, 빠른 타령에 맞추어 조선시대 무사복을 갖춘 8명의 무용수가 2줄로 마주보고 서서 앉은 채 색동천을 끼고 칼을 휘저으며 춘다. 춤사위의 종류로는 한삼을 끼고 무릎을 굽혀 도는 속은 사위, 앉아서 추는 앉은사위, 허리를 앞으로 엮었다가 뒤로 제치며 빙빙 도는 연풍대 가락, 맨손으로 팔을 펴는 손 사위 등으로 다양하며 독특하다. 반주 악기로는 피리, 저, 해금, 장구, 북 등이 쓰인다.

현재의 진주검무는 당시 진주감영(현재의 시청)에 속해 있던 교방청(敎坊廳:일종의 기생학교) 기녀들의 의해 전승되던 춤으로 궁중 기녀들이 낙향하여 관청 기녀들에게 가르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주검무는 연출형식, 춤가락, 칼 쓰는 법 등 모든 기법이 과거 궁중에서 열던 검무의 원형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다. ()은 나이, 인성분야, 인정입임.

문의: 의정부시무용단 031-877-8891

이미숙 단장

정신건강연극제 ‘하얀자화상’ 공연

의정부시보건소, 정신장애인의 날 맞아

의정부시보건소 정신보건센터는 4월4일 정신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신보건에서 정신건강의 의미를 확대하고 정신건강의 날 홍보성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연극제 ‘하얀 자화상’ 공연을 4월13일 오후 2시의 정병예술회관에서 소극장에서 시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했다.

이번 정신건강 연극제는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이 갖는 고통과 애환

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공연으로 펼쳐졌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정신장애에 편견을 없애는 사회운동으로 인식이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정신보건단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 구축이 마련 될 것이다.

한편, 정신보건센터는 매년 정신장애인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이러한 사업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정신장애인의 고통과 가족들의 애환을 이해하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